

섬이 주목한 영화... 상처받은 이들에게 손길을

제주영화제 내달 2일 개막
개막작 고훈 감독 '종이꽃'
트멍경쟁 관객상 3편 상영
폐막작 국내 첫선 '...빅 송'
아일랜드 시네마·트멍 초청



제주영화제 개막작 고훈 감독의 '종이꽃'.

상처받은 인간들에게 내미는 따스한 치유의 손길이 제주영화제의 처음을 채운다. 사단법인 제주영화제(이사장 권범)는 올해로 15회째인 제주영화제(JEJUFF) 개막작 등 상영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제주영화제는 11월 2일 막이 올라 30일까지 계속된다. 제주 섬을 중심으로 세계 섬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존중하고 섬 지역의 매력적인 영화를 발굴한다는 영화제 취지에 맞춰 개·폐막작, 아일랜드 시네마, 제주트멍경쟁(관객상), 제주트멍초청, 특별전 상영 등이 잇따른다.

개막작은 제주 고훈 감독의 '종이꽃'이다. 안성기, 유진, 김혜성, 장재희가 주연을 맡은 '종이꽃'은 고훈의 시간을 건너는 이들의 추하고 불편하고 아픈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며 그를 통한 참다운 연대를 그려냈다. 첫날 오후 3시 제주아트센터 상영 후에는 고훈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트멍경쟁작은 3편이 올랐다. 박철우 감독의 극영화 '애월', 정다운 감독의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 임형묵 감독의 다큐멘터리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이다. 이들 세 작품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제주아트센터에서 상영된다. 전문가 투표단과 공모를 통해 모집한 트멍관객투표단을 통해 트멍 관객상을 가려낸다.

폐막작은 국내에 첫 상영되는 팀 콜 감독의 '스몰 아일랜드 빅 송(Small Island Big Song)'으로 정해졌다. 11월 30일 오후 3시 제주돌

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펼쳐지는 폐막식에서 상영되는 이 작품은 제작진이 3년 동안 태평양과 인도양을 누빈 결과물이다. 100명이 넘는 16개국 출신 원주민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 섬의 언어와 악기로 멋진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이들 음악의 조성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팀 콜 감독과 프로듀서 바오 첸이 폐막식 무대 인사와 관객 대화에 나선다. 폐막식에서는 제주 음악인인 사우스 카니발의 축하 공연도 이루어진다.

이와함께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CGV제주노형 등에서 '아일랜드 시네마' 섹션으로 파올로 주카 감독



폐막작인 섬 음악의 향연을 그린 '스몰 아일랜드 빅 송'이다.

의 '달을 사 버린 남자', 김기영 감독의 '이어도', 패디 브레스넬 감독의 '로지' 등을 선보인다. 제주트멍 초청작은 '소리계떼'의 음악적 여정을 담은 이상목 감독의 '비바라 바다', 고훈을 떠난 세 여성이 마주하는 참혹한 사건을 좇은 임흥순 감독의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두 편이다.

제주시 봉개동 '아트인명도암'에서는 제주영화제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한 강부연의 '삼무일기' 전시와 제주 유랑극장 상영이 이루어진다. 제주영화제 홈페이지에 자세한 일정이 나와있다. 문의 064)748-050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헌책에 숨은 가치 느릿느릿 찾아볼까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책발서점서 1200여권 골라
내달 5일 헌책 판매 행사

치를 발견하고 책을 찾는 즐거움에 다들 수 있는 시간이다.

이날 북 페어에 달린 이름은 '두드러라, 더 많은 지식을!'이란 앞 글자에서 따왔다. 언론홍보학과 최낙진 교수와 대학생들이 책발서점에서 직접 고른 헌책들을 가져와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대 언론홍보학과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과 손을 잡고 헌책 판매에 나선다. 11월 5일 제주대 신관 앞 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두드러라 북 페어'다.

헌책 판매는 언론홍보학과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제주대학교 학생은 물론 제주도민들과 책을 통해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고 제주를 독서 문화 도시로 가꾸려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책값 부담없이 느릿느릿 들여다보며 헌책에 숨은 가

행사장에서는 책발서점의 도움을 받아 1200권 이상의 헌책을 판매하고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굿즈도 제공할 예정이다. 북 페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비가 올 경우 11월 12일로 1주일 연기해 치른다.

언론홍보학과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헌책방과 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4·3항쟁의 정체성' 강연

제주대학교 열린 문화강좌인 '문화광장'은 이달 30일 오후 4시 제주대 아라무즈홀에서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 초청 강연을 벌인다.

주철희 박사는 이날 '한국 현대사 재조명과 제주 4·3항쟁의 정체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주 박사는 2013년 여순사건을 다룬 논문으로 전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의 064)754-8265.

문화예술섬 도민 원탁회의

제주도는 11월 1일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 원탁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는 도민 50명을 공개 모집해 문화예술가 지원, 문화공간, 생활문화·생활예술 매개자 등 분야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8일까지 이메일(ringe@naver.com)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710-3411.

이번주(10월 28일~11월 3일) 무대 & 미술

감물염색 연구 여정 제자들이 기린다

박현영 교수 정년퇴임전
제자 20여명 나란히 전시

감물염색 연구 개발 등 제주를 고향처럼 품었던 제주대 산업디자인학부 박현영 교수.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둔 기념전에 제자 20여명이 '서로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제주 갈천공예의 방향을 제시해왔고 제주섬유예술가협회 창립을 이끌었다. "제주에서의 삶은 예술가로서 풍부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는 박 교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년퇴임을 빛내준 제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공연>
▶헨델의 '메시아' =빛선교합창단

10월 28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3696-2780.

▶예술공간 오이의 '소통' =10월 28~29일 오후 7시30분 오이. 755-0904.

▶제주 보 피아노 듀오 연주회=10월 2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8664-4204.

▶베가 피아노 트리오 연주회=10월 29일 오후 7시30분 아라무즈홀. 754-4697.

▶카리스합창단 연주회=10월 2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5347-2876.

▶한푸리 힐링 국악콘서트=10월 29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헬로포터의 신비한 마법학교=10월 30일 오후 3시와 7시 국립제주박

물관. 720-8035.

▶뮤지컬 '잊을수 없는 꿈' =제주도 광역치매센터 10월 30일 오후 7시 문예회관. 717-2923.

▶대구연극협회 극단 기차의 '9 to 5' =10월 31일 오후 7시30분 한라아트홀. 755-0904.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연주회=10월 31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6798-5456.

▶서귀포여교 음악제=11월 1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6-1141.

▶제주대오케스트라 연주회=11월 1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7430-0220.

▶신(神)바람 타고 세계로=11월 1~2일 칠머리당영등극 전수관. 753-7812.

▶벨 칸토 클라리넷 앙상블 작은음악회=11월 2일 문예회관. 725-1589.

▶섬아이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11월 3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753-8996.

▶돌·고래의 꿈=기타리스트 산하, 피아니스트 임인진 출연. 10월 3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73.

▶제주빌레앙상블 '바람의 섬' =10월 30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1509.

▶강산에 콘서트=11월 1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54-2333.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토요일 악소풍=11월 2일 오전 11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760-2494.

▶피아니스트 조성진 독주회=11월 2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퍼포먼스단 몸짓의 '의자는 잘못 없다' =11월 2일 오후 7시30분. 3일 오후 3시 미에랑소극장. 755-

0904.

▶골든브라스앙상블 연주회=11월 3일 오후 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5757-3507.

▶골빛여성합창단 연주회=11월 3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3694-3767.

<전시>
▶김지환 개인전=10월 28~11월 9일 미음갤러리. 010-3719-7904.

▶스물아홉 개의 평화=10월 29일까지 포지션민제주. 725-4410.

▶양영심 개인전=10월 30일까지 초록빛 아트갤러리. 757-1703.

▶박현영 교수 정년퇴임전=10월 31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일본 신화 교류전=제주문화포럼 주최 10월 31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아트콘테 정기전=10월 31~11월 4일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43.

▶백성원 개인전=11월 1일까지 둘하나갤러리. 728-4472.

▶김방희 조각전=11월 1~2020년 1월 21일 제주현대미술관. 710-7801.

▶이승수 개인전=11월 1~15일 거인의정원. 010-3690-7545.

▶안세현 개인전=11월 1일까지 둘담갤러리. 800-9163.

▶고함 개인전=11월 2일까지 새랑라움. 010-3553-1303.

▶전국 추사 서예·문인화전=11월 2~7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광주·전남 전각 교류전=11월 2~7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건축대전=11월 3일까지 산치전갤러리. 725-1208.

▶영원의 물방울, 영원의 기록=11월 3일까지 김창열미술관. 710-4150. 진선희기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